

경찰, 鄭캠프 압수수색 시도 배경과 전망

“대선 구도 지각변동 오나” 촉각

鄭 “공권력 동원 친노세력 찬탈 음모”

20만명 모바일 투표 중대 변수 급부상

경선 관련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판이 또 다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.

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찰의 경선 관련 수사가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 결과는 물론 향후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◇경찰 압수수색 시도=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정 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정 후보 측 관계자들의 유탄 저지로 무산됐다.

정 후보 측은 이날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입의제출 형식으로 차후에 보내겠다는 입장장을 나타내며 압수수색을 끝으로 막았다.

정 후보 측의 유탄 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영장 시한이 오는 13일까지라는 점에서 정 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.

◇각 후보 입장=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 후보 측은 “공권력을 동원한 친노(親盧) 세력의 ‘정동영 후보 죽이기’며 후보 찬탈 을 모”라며 강력 반발했다.



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캠프 양형일, 최규식, 이강래 의원 등이 7일 오전 어청수 서울 경찰청장을 방문해 선거인단 명의도용과 관련한 캠프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한 후 돌아가고 있다. /연합뉴스

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도 경선 위기 국면속에서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. 현재, 정 후보와 손 후보의 표 차이는 1만3천274표, 정 후보와 이 후보의 차이는 2만1천484표 차이다.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1, 2위는 물론 1, 3위의 역전도 충분히

가능하다. 한편, 친노 진영의 항복도 관심거리다.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이 해찬 후보가 3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진영이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경선을 포기하고 신당 청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警, 명의도용 명단 제공 관련자 체포

鄭캠프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 곧 결정

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등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(여·45)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건넨 전 열린 우리당 중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(34)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.

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미리 발부받

아둔 체포영장으로 체포 절차를 밟은 뒤 정씨에게 당원명부를 건넨 경위와 정동영 후보 캠프 쪽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.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중로지구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“기습적 많은 사람을 선거인단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.”는 부탁과 함께 옛 열린 우리당 당원 800여명의 인적사항이

로 무산된 것과 관련, 경찰과 협의를 거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결정키로 했다.

경찰은 정씨 아들 박군 등 명의도용에 관여한 대학생 3명에게 정 캠프 쪽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준 캠프 관계자 최모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 할 방침이다.

한편 서울경찰청은 노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정인훈(여·45)씨를 7일 구속수감했다.

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달부장관사는 이날 “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”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제 권 판 결

주문 아래쪽에 기재 종서에 대하여 신청의 반송수(광주 남구 진월동 금광하늘연가 105동 802호)가 신고한 권리로 보류하고 위 종서의 등록을 신고한다. 이 유 아래쪽에 기재 종서에 대하여 2007. 6. 22. 공시최고를 하였는데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. 6. 6. 신청의 반송수(광주 남구 진월동 금광하늘연가 105동 802호)로부터 권리신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기공 276 우송검증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순호 외속어를 반송:자기0303930226 금액:금45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5월 3일 지급일:2007년 6월 25일 광주 서구 혼성동 22-9

건설업면허 양도·양수

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
업무내용

■건설업면허(법인) 양도·양수

■법인 M&A(분할 합병)

■건설업 신규등록 대행

■기업진단(공인회계사)

■공제조합 출자금 대납

■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

(주)우성건설정보

본사

TEL : (02)587-7400

FAX : (02)597-8855

호남지사

TEL:(062) 226-6300

FAX:(062) 943-2244

무등공인중개사

☎(033) 5221 헌 011-809-5221

(상무구 입구)

도지미매

부경 36동 7층 3,000평형(지역

고시판) 유동 129평 매매가 98억

(토지·교통가격)

부동산구매자와 입구(신현동)·옹

자101동 10층 1,800평면

예상 매가 34억

·지평 1대지 6,233㎡(490평) 건폐 4,

100㎡(1,250평) (상가·병원·학원·재

학·아파트) 가 80% 평당대비 4.

000원/평

·보증금 3,700만 원

·예상 매가 34억(상무구 입구)

·도지미 매매가 98억

·도지미 매매가 98억